

힐링 도시 순천, '웰니스 관광자원' 키운다

광역형 시티투어 연계 콘텐츠 발굴·고부가가치 관광코스 개발 등 순천시 관광 활성화 위해 세부 방안 마련...17개 핵심 과제 추진

순천을 경유하는 시티투어 콘텐츠를 발굴하고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웰니스투어를 '웰니스(Wellness)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등 관광활성화 전략이 나왔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과 연계한 '순천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중이다.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행복공유 즐거움이 있는 힐링도래지, 순천'이라는 비전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17개 과제는 정부의 관광전략인 '관광거점도시 육성', '고부가 관광지역 클러스터 조성', '지역관광 콘텐츠 확보' 등과 연계한 것으로, ▲남해안 남중권 광역형 시티투어 및 콘텐츠 확대 운영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코스 개발 ▲순천형 웰니스투어를 웰니스 핵심 관광자원으로 확대 ▲갯벌·농촌체험을 위한 콘텐츠 확대 발굴 ▲남도 삼백리길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관광코디네이터·해설사 등 관광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광역형 시티투어에 순천지역을 경우토록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난 2017년부터 운영중인 순천 웰니스투어를 지역 웰니스 핵심 관광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웰니스 관광자원을 결합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복합형태의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다.

순천의 경우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형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순천만습지, 와온해변, 화포해변 등

생태해양자원과 야생사체험관, 향매실마을 등 농촌체험자원을 매력적 지역관광코스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 관광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등 주민사업체 육성 방안과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전문가,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등 관광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역 관광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역 관광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세계동물영화제 봄 조성 사전 프로그램 다채 내달 9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찾아가는 영화제'

제 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8월 22일 개막)를 앞두고 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이 순천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세계동물영화제 개막을 앞둔 오는 8월 9일 '찾아가는 영화제'가 순천 조례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극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동물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제에서 제공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화, 인문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강연 프로그램도 오는 8월 2일과 9일, 16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오는 2일 강연자로 나서 '알바트로스'를 주제로 강연하고 금정연 작가는 9일 '페터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는 16일 '아네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등 영화제 프로그램의 기본 역할과 자신만의 영화제를 직접 기획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오는 8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순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포스터

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시민 영화제 프로그램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영화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자제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순천에서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공존을 다룬 70여 편의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별랑면의 '논 아트'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대형 호랑나비·별 문양도

순천시 별랑면 논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별랑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사업으로 논 아트를 조성하면서 만들어낸 모습으로, 스파이더 맨 옆에는 비슷한 크기의 대형 호랑나비, 별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반벼를 심은 초록빛 들판에 흑색 벼 등 색깔있는 벼로 연출한 논 아트는 좌표 설정 등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올해 네 필지의 논에 좌우로 생태 환경을 나타내는 호랑나비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의 이미지를 담았다.

별랑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가을에 논 아트가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밤잠 깨우는 오토바이 소음 대대적 단속

순천시 29일부터 일주일간

순천시가 대대적인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나선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시민들 민원이 잇따르면서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밤 늦은 시간까지 오가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오토바

이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단속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는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1주일간 단속에 들어간다.

오토바이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소음 단속은 사실상 처음이다.

소음기를 떼고 달리거나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낮과 밤으로 나뉘는 낮 시간에는 교통안전공단과 배달대행업체 차고지를 찾아 소음기 훼손 여부나 불법 개조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단속을 진행한다.

퇴근시간 이후와 밤 시간대는 경찰과 합

동으로 자정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정자중인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 측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길이 막힐 때 차와 차 사이로 달리거나 폭이 좁은 1차선 도로를 지나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적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순천시는 단속 과정에서 소음기 훼손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허석 시장,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 관련 사죄

허석 순천시장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과 관련, 고개를 숙였다.

허 시장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은 관계 법령 잘못 해석하고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결과로 보이지만 결국은 제 책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단독 법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 법인 설립 절차 이행,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날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결과, 순천시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했다며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센터장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하계 청춘페스티벌' 27일 순천드라마촬영장서 열려

'제 7회 하계 청춘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전설의 고향 2019'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무대로 순천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촬영장 내 체험부스에서는 '비즈 열쇠 고리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한지전 등 만들기', '물총과녁', '소원팔찌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귀신의 집'도 운영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귀신의 집' 코스를 원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치킨 기프트콘, 커피 기프트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청춘페스티벌은 순천여행을 홍보하는 청년 관광해설사들이 '청춘여행길잡이' 12명이 기획, 진행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순천역 광장에서 웰컴 투청춘역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순천여행을 알리기 위해 기차 이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안내 및 SNS 홍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4번 출구 / 동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